

출산 장려 불교가 앞장서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전문가 초청 다양한 가능성 논의

“저출산 문제와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 불교계에서 가정의 달인 5월에 건강한 출산과 지혜로운 부모됨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자. 또한 출산과 생명가치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키는 인식개선운동도 펼쳐자.”

이영호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신)이 12월 21일 만해 NGO 교육관에서 개최한 ‘저출산 정책 포럼 및 부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가족교육 성과 발표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저출산 정책의 이슈를 알아보고, 불교계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는 손주영 보건복지부 저출산인구정책과 사무관, 이영호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최중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불교 접촉 한부모 가족 지원 가능

이영호 센터장은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과 불교계 참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불교계가 한부모 가족 지원과 관련해 불자성의 내면화를 위한 교육과 실천, 분담사 체계를 활용한 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안했다. 또한 자치구 사업 연합회의 신도 가족봉사단 활동, 태교 팔경도, 태아와 함께하는 육바라밀 등 사찰 내 강좌를 개설해 불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이 밖에도 범 불교적 인식

개선 캠페인, 한부모 가정 상담소 설치, 재단산하 어린이집 한부모 가정자녀 우선순위 부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부모 가족은 2005년을 기준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330만 가구 중 137만 가구가 한부모 가족이다. 서울시 한부모 가족은 31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의 9.6%에 해당한다.

이영호 센터장은 “한부모 가족은 이혼 가구의 증가비율이 두드러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도 증가 추세다. 부자 가구의 증가비율이 모자 가구에 비해 높다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증가는 전체가구 빈곤율에 3%에 해당한다. 모자가정은 실업, 불안정 고용, 주택, 의료비 등 경제문제가 심각하다. 임양가정의 87%가 미혼모 자녀이며 주된 사유는 경제적 능력부족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위기상황 극복, 사회적응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 6월에 설립했다. 센터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종합상담, 취업지원, 미혼모 대안학교, 재무설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혼모 대안학교인 캠퍼스 스쿨은 학습 및 교육의 기회가 단절된 미혼모들에게 검정고시 학습, 진로탐색, 자아발견 등을 통해서 계속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세 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친정엄마맺기’ 멘토링 사업은 출산양

[표]1자녀 이하를 둔 20~39세 기혼여성의 가장 주된 출산중단 이유

구분	소득/고용 불안정	자녀 양육비 부담	자녀 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가치관 변화	불임 등 기타	
'05	전체	18.5	9.9	18.0	9.1	19.7	24.8
	취업	24.4	7.6	13.4	11.8	21.8	21.0
	미취업	14.1	11.5	21.8	7.1	17.9	27.6
'09	전체	18.6	16.7	26.7	6.0	15.0	16.9
	취업	20.0	8.6	22.9	14.3	21.9	12.4
	미취업	17.7	20.8	28.6	2.2	12.1	19.0

*보건사회연구원,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육의 경험이 있는 멘토를 선발, 교육을 통해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와 1:1 매칭을 통해서 미혼모들의 정서 안정 및 출산과 양육을 중심으로 생활코칭을 하는 사업이다.

저출산 해법 사성제 재해석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08년부터 ‘건강한 출산·양육환경 조성사업’을 펼쳐왔다. 사회복지재단은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불교계 인식개선을 중점적으로 교육해왔다.

올해 실시된 ‘부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가족 교육’은 불교계 생명관과 가족관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불교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생명 존엄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재단자체교육과 스님, 재가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재단자체교육에서는 ‘부모가 곧 부처입니다’를 주제로 특별 법문을 열어 불교의 효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교육에서는 불교

의 여성관과 현대의 성 평등,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을 불교의 사성제로 재해석했다. 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는 전국비구니회와 연계해 부부·가족상담 사례연구,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불교사회복지 대응 전략, 불교의 생명관과 생명윤리 등을 주제로 외부 전문가 강연을 가졌다.

이 교육은 스님들이 사찰에서 불자의 가족 상담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초점을 맞춰 스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중생제도를 위해서도 상담교육 전문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재가자 대상 교육은 불교계 어린이집 부모를 대상으로 전국 사찰 및 불교대학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최중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으로 불교계 생명관과 가족관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했다. 그러나 불교 특화전문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인력풀 구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본동복지관, 행복이 넘치는 송년의 밤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은 연말연시를 맞아 자원봉사자, 후원자, 이용자가 함께 하는 송년의 밤을 마련했다.

“행복한 만남·소중한 시간”이라는 주제로 12월 16일 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동복지관은 송년의 밤을 통해 올해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2011년 전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가

졌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표창장을 전달했고,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이어갔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자원봉사자, 후원자, 이용자가 모두 행복해지는 시간이 됐다. 내년에도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청소년 미래 등불 밝힌 낙산복지재단

장학금 수여, 문화체험캠프... 밝고 건강한 성장 기대



낙산사 복지재단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문화캠프를 열었다.

낙산사 복지재단(이사장 금극)이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및 문화체험캠프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낙산사복지재단이 지역사회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릉MBC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12월 22일 낙산 유치원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양양군 저소득가정 청소년, 위탁가정청소년 등 60명의 청소년들에게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12월 22-24일 낙산사와 서울 일대를 체험하는 문화캠프도 진행했다. 청소년들은 22일 낙산사 유스호스텔에서 한지공예와 명

상 체험을 가졌고 23일에는 일산 MBC 견학과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을 관람했다. 마지막으로 24일에는 조계사와 불교문화박물관을 견학하고 양양으로 돌아갔다.

낙산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양양군 저소득가정 청소년 및 학업우수 청소년에게 확연한 희망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환경을 제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낙산복지재단은 12월 20일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갖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기범 기자

“종교계와 사회 전반의 장기적 안목 중요”

손주영 보건복지부 사무관, 불교계 생명존중 가치관 확산 기대



이날 손주영 보건복지부 사무관(사진)은 ‘제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05년에 세계 최저 수준인 1.08명을 기록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취업과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2009년 합계출산율이 1.15명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했다.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 부담의 경감 등 90여개 과제에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으로 필요한 경우 휴가와 육아 휴

직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육아휴직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휴직급여를 현재 월 50만원 정액제 지급에서 임금이 연동한 정률제로 개선했다. 또한 현재 3일로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로 연장하고 3일간은 유급화 했다.

정부는 또, 결혼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택마련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서민주택구입 자금대출에 대한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부모들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진료비를 2012년까지 50만원으로 늘리고 난임부부에 게 시술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도 기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62만명)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맞벌이의 경우에는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손주영 사무관은 “사회전반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특히 종교계는 국민의 정신적 리더로서 생명 존중의 가치관 회복과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대한불교원효종 신년 하례 및 인원 확정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종도님들의 법체 청안하심과 하시고자 하는 제반일들이 부처님의 자운으로 원만회향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종단은 불기2555(2011)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코저 합니다. 현재까지 등록하신 종단소속원을 잠정적으로 집계하여 종단의 종도로써 권리와 의무를 부여 받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바쁘시더라도 뜻있게 원만회향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2555(2011)년 1월 6일 오전 11시
- 장 소 : 대한불교원효종 목련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번지)
- 문 의 : 총무원 02)735-0501~2 / 울산사무소 052)262-6857, 6859

총 무 원 장 향 운 합 장

* 대한불교원효종은 신규등록, 재등록을 계속 받고 있으며, 종단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총무원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